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토독토독 2024-2 활동내용		
동아리 분과	학술분과	동아리명	토독토독
활동시간	2024.09.01.~2024.12.31	비고	2주간 1권의 책으로 1회 모임 설캠조,혼합조,국캠조로 세분화시켜 진행
활동목적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공통의 책을 읽고 모임을 가지면서 독서를 습관화시키고 토론 활동과 접목시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사고를 견고히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설캠조의 경우 설캠 근처의 카페에서 진행/ 혼합조의 경우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진행/ 국캠조의 경우 국캠 근처 카페 혹은 동아리방(학새회관 607호)에서 진행하였음</p> <p>활동내용: 약 150명 가량의 동아리원들을 두고서 2주 간격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음. 2주마다 본인이 어떤 조에 편성되고 싶은지 자율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조편성을 해주었음. 한 조는 약 4-5명 가량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조가 구성되고 나서 조끼리 따로 단톡방을 개설하여 함께 읽을 책, 모임장소 및 날짜를 정하고 조모임을 가졌음. 조모임까지 각자 정해진 책을 다 읽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조모임 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며 활동을 진행하고 각 조의 조장은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토독토독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면서 활동을 진행하였음.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하여 다른 조원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하며 읽지 않은 책에 대한 내용과 토론내용도 볼 수 있게끔 하였음.</p> <p>소감: 역대 가장 많은 부원들이 있었던 학기로, 활동이 활발하였고 그만큼 다양한 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읽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도 다른 조의 패드백이나 보고서를 통해 다음 활동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지 결정하기 쉬워서 좋았음. 다른 조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속에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음.</p>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서울특별시 7조(김태욱, 이예진, 조수민)

<이 책을 선택한 이유>

김태욱: 정확한 달리기 용어와 기법 중 달리기와 관련된 책에 관심이 생겼는데, 무려히 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 이번 활동을 위한 책으로 선정하였다.

<인상 깊었던 구절>

- 시문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

가랑 달리면서 '아파, 힘들다' 이런 관티였다 라고 생각했다고 지문, '힘들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파' 안되겠다'든지 '아침까지' 안되겠다'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김태욱: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일반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인상 깊었다.

- 20-21p

아연이란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마소를 죽거나 약간 폭주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해진 일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에 있다.

김태욱: 어떤 완성된 결과물은 그 안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이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 일상 속의 미세한 흔적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역시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독토독 국경 23조 조별 활동 보고서

-강태훈, 김찬원, 문기윤, 최종혁-

책 : 앤도루 , 작가 : 서머릿 물

토독 참가자: 김찬원, 문기윤, 최종혁

<리뷰>

김찬원: 줄거리를 보면 전부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소설. 왜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을 책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곧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스스로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만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문기윤: 철학적인 소설. 작가 본인이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하여 끊임없이 늘어놓다. 전쟁을 통해 삶의 희애에 빠진 '레리'의 깨달음을 찾는 일구 일대기를 보여준다. 비록 글의 초점은 레리에게 맞춰져있으나, 그 주변인물들 역시 자세히 다뤄지며 각자 하나하나의 인상은 소설책을 읽었을 때 주인공 레리보다 다르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남았다. 레리, 이사벨, 쇼미, 엘리엇, 수잔, 그레이 모두의 삶과 기사가이 나라에 정확히 들어박혔다. 레리는 정신적 고양 및 평화를 찾아 방랑하며 이에 대적할 수 없던 이사벨, 엘리엇은 물질적 풍요를 좇는다. 누구의 삶이 더 좋다고 표현하긴 힘들게 작가는 선택을 구분짓지 않고 일대적인 안일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레리인 만큼 작가가 바라고 원하는 바는 레리인 삶일 것이다. 레리가 인도에서 얻은 깨달음인 일과 악의 동시성을 나 역시도 느끼고 있어서 소름이 돋았다. 내 생각엔 호와 불호 성의 악 행적과 불행 모두 상대적인 것이므로 행적의 존재를 갈망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불행에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통을 감내해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이 우리가 이어가는 삶의 본상이 아닐까? 작가는 다양한 가치관을 갖춘 다양한 인물상의 다양한 성공담을 제시하여 어느쪽으로든 본인이 아끼려는 방향으로 갔으로 성공의 길은 존재함을 깨닫고 싶은 게 아닐까 싶다. 단지 그 행복을 좇는 길은 어떻게든 불행과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일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며 삶이다.

토독토독 13조 1차 활동

일시 : 2024 9.27. 금

장소 : 정전 건너

책 : 다크호스

조상준 : 내가 커서 무엇을 하고 싶든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흔히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길'을 따라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하고 어느 순간 이후로, 시간에 대한 압박과 어떻게든 나 자신을 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남들과의 비교 등의 이유로 내가 어릴 적부터 바랬던 '혁신가'로서의 꿈을 포기했던 것 같다. 그렇게 현실에 발단을 붙이내면서도 막상 새로운 길을 찾아갈 용기는 없었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책이라고 생각된다. '김재훈 : 그동안 혼자 어렵것이 생각했던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길'을 '표준화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확실하게 정의하고, 설명해 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도 더 두터워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설민환 : 여러 다양한 동기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어떤 일이 나의 여러 다양한 동기,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보기 즉 특정한 일이 나의 여러 종류와 열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를 들면 정리 열망 들은 열망 사람을 주도하는 열망 성장하는 열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 근데 이 책에서는 표준화 계약 쪽이 아니다. 큰 부분으로 자신의 미시적 동기들 따른 사람들이 성공한 부분만 보여주고 잘 안된 케이스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



토독토독 13조 토독 보고서

김서영 김승진 박준혁 이주영

2024-09-24

주요 주제

- 예술 작품 감상 방법과 이해에 대한 관점
- 작가의 주관과 이해에 따른 예술 작품의 다양성
- 인생과 예술의 관계와 예술 작품 가치

소감 및 느낌

선임관 디와

- 예술 작품을 볼 때는 하나로 단정을 짓지 않아야 하며, 일단 가만히 감상을 먼저 해보는 것이 올바른 작품 감상법이다.
- 따라서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선입견이며, 나아가 작품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자는 게 이 책의 교훈 중 하나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시간 개념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반복되는 일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 변화하기 않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초자연 시간 개념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 자체이다.

브람리의 용기

- 브람리가 전시장에서 그림을 시작 한 것은 하나의 용기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의 정의

- 예술은 작가의 주관에 따라가지만 관람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물론적으로 더 많은 수 있는 게 없을 때 공허하고 피폐한 것들을 재울 수 있는 게 예술이다.
- 예술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가치가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권순원

본 책에서는 말과 글의 차이, 공감과 설득, 칭찬을 받는 방법과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며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만만하지 않고,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1장에서는 말과 글의 차이를 명확하게 다뤄주며,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색깔에 맞춰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학교 생활을 하며 항상 발표할 때 논리적인 구조로 말하기가 되지 않아 초상했는데, 이제는 말과 글의 차이를 인정하고 말과 글의 차이를 더 살리고자 노력해야겠다.

2장에서는 일상 생활과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화법 차이를 다뤘다. 일상 생활에서는 논리적이고 딱딱하게 본인 주장을 내세우는 화법 보다는 공감을, 비즈니스에서는 단호한 감정이 아닌 관자치러 일 논리적인 공감을 하라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공감 보다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 책을 계기로 화법면 바뀌어 보고싶다.

3장에서는 거절을 단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어떤 부분에서 서나와 생각이 다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내용을 잘 읽어볼 예정이다.

김기환

1장, 진정한 거짓말, 솔직함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솔직한 편이라는 이유로 솔직함이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mbti가 라는 이유로 자신은 편서 어떨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짓말 솔직함이 일어난 것 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토독토독 13조 토독 보고서

김승진 김영진 유진

2024-11-16

주요 주제

- 질문 사람의 의미와 자기애의 중요성
- 인간관계 형성고 노력의 중요성
- 문화를 읽는 것의 중요성과 문해력의 중요성

소감 및 느낌

함한 사람의 의미

-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가 각자 시장에 나온 상품이고 나 상품과 상대방의 생활을 고려해서 시장에서 가장 최적의 제품을 찾았을 때만이 서로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이 현실 같음

- 현대인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치중이 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사랑은 주는 일 위주로 해야 함

- 좋은 사람과 한 사람 내지 하나만 대상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나 특징을 살펴 그 자책을 나타냄

-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행복한 행복하고 충분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러나 과연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길까 하는 의문이 남음

자기애의 중요성

- 자기애가 충분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랑을 쏟는데는 느끼지 못하였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대외적으로 보여질 때나 사랑을 할 때 좋은 태도

대인 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영원함이 오래갈지라는 이상적인 사고가 이어질 것 같았는데, 30대 후반인 젊은 나와 달리 사람의 덧없음과 안정적인 동반자를 더 고려해서 선택한 것 같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기엔 짐작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크게 공감하기 어려울 결말이었던 것 같다.

오묘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일상과 가깝다고 볼 법한 내용이라 쉽게 읽혔다. 작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주인공의 마음속 갈등 묘사가 재미있었고 공감도 많이 됐다. 특히 브람스를 좋아하나는 질문을 받은 풀이 본인이 브람스를 좋아했는지 생각 하며 브람스의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신강 스이는 누군가가 있으면 다들 한가해 집중하기 어려운데, 작가는 이를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음악과 딴을 쌓는 것으로 자신의 자아를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또한 제독과 같은 브람스를 좋아하나는 질문을 통해 주인공이 살아 가고 있는 현실, 자기 생활 이외의 것을 좋아하는 여 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러고 있을까? 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안을 찾는 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말에서 풀이 결국 로제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랑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 생각이 인간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하며 그것을 가지고 난 뒤에는 과거에 가진 열망만큼 소중히 하거나 애정을 쏟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지 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분명한 상황과 고민하는 마음 등을 즐기는 것은 아닐까? 로제에게로 돌아간 풀이 모습을 보며 잠깐의 일탈이 었나 하는 허무함도 있었다. 어쩌면 이 점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일 지도 모른다. 인간의 사랑 과정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라서 괜찮게 읽은 것 같다.



토독토독 섬점 14조 활동 보고서 (11/14)

장대지 : 김태현, 이예진, 정한솔, 조수민 (이학 - 태, 태, 한, 한)

이 책을 추천한 이유

한 : 유명하지만,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했다. 제목이 흥미가 갔다

책 첫인상

책 : 두꺼워서 읽기 부담이 느껴졌지만, 술을 읽어서 좋았다. 어려운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읽기 쉽게 잘 쓴 것 같다.

한 : 책속지가 책에서 나왔었다(김태현:는 느낌이었는데) 일대가 느낌이 나서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 : 제 페이지 내용이 신선해서 초반 내용이 술을 읽었다

수 :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등장인물의 '장우'의 말투가 너무 좋았다. 진정성있는 등장인물같은 느낌이어서 좋은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 남았던 책의 내용 / 이 내용은 왜가 나뉘고싶었다

한 : 모습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다.

사람하는 사람한다는 솔직하지 못하고, 사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솔직한 것.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한다는 솔직하게 한다 생각한다.

오묘반만 연인이나 결혼상대에게는 솔직하게 한다.

내 번째 작품(조수민, 이예진, 정한솔, 김태현)

활동 도서 : 고기로 태어나서(한승태 지음)

Q1. 책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태현)

태 : 앞 부분만 읽었는데도 고기가 먹기 싫어지는 느낌이 강해서 언젠가 완전히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이러한 감정을 다 함께 느끼고 이야기 해 보고 싶었다.

Q2. 책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수민 : 추천 후보로 올랐던 두 권의 책 중 제목이 더 직관적이어서 관심에 갔다.
조수민 : 추천 후보로 올랐던 책들의 줄거리를 미리 검색해보았는데 '고기로 태어나서'의 줄거리 를 보니 인상깊게 읽었던 한 작가님의 '채주주의자'가 생각이 나서 선택하게 되었다.

Q3. 인상깊었던 내용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조수민 : 사육장에 갇힌 송더비가 일을 하면서 병마리를 버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해진 장면이 인상깊었다.

정한솔 : 경희대학교 교양 수업인 박문을 들었을 때 봤던 채식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도 닭과 돼지를 키우는 곳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담고 있었는데, 영상으로도 충격적이었던 현실이 글로 보았을 때도 거북하게 다가왔다.

태현 : 동물 사육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만 마주하다가 송해의 대표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김용 임이 국민가수가 될 것이라며 자신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피해자인 김강이 리트레싱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이후 소소한 장면들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정한솔 : 닭을 먹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살면서 동물의 사육 환경 및 사육하는 노동자의 처우 등에 관해 한번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이무렵까지 알게 동물들 죽이는 모습에 거북함을 느꼈는데, 일이 끝난 후 집에서 요리해 밥을 먹고 노지랑만 프로그램 보는 것들의 한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니 이 사람들이 진 정 나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41102-20241116]

토독토독 세 번째 활동 보고서

『모든 것은 빛난다』 휴버트 드레이리스, 손 켈리

8조: 안소연, 김명준, 김정민, 김영찬

저희 조는 휴버트 드레이리스, 손 켈리의 『모든 것은 빛난다』를 읽고, 기억에 남는 부분과 책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소연

스스로에 대해 사색해 본다 하더라도, 먼저 지혜를 탐험해 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전, 후의 차이가 꽤 있다. 인생을 살아감은 곧 삶을 운용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그것의 주체가 되기에, 나의 행동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통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곧 행동결과 및역상통행 것이다. 이 행동결과를 본 책에서는 '빛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모두가 동등한 만한 영웅적 행위로 인하여 빛날 수도 있다. 가령 해나기 힘든 운동이라든지, 재 능이라든지, 혹은 굉장한 희생을 보였든지들을 통하여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대단하기 때문에만 빛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급되는 '빛'은 개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 에 '내가' 있음을 누군가 가르쳐주거나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사되어 판단하고 행위할 때 맞이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독자의 실존적 사고를 위하여, 본 책은 여러 철학적, 예술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기억에 남고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호메로스의 세상 이야기였다. 해당 세계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헬레네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본인을 내맡기는 탁월성을 잘 실천한 것 으로 분석되어 호메로스의 세상에서 헬레네는 칭송된다. 오늘날 시비 분별의 도덕적 미학이 아니라, 호메로스의 세상 안에서만의 성스러운 선은 상황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감사를 갖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황 자체에 나 자신을 내맡김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아야 함도 중요하다. 즉, 상황 속 개인을 자기 실존을 통해 하기에 수동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다른 결의 주장이기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니체의 관점을 취하는 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 '선택' 을 해야 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설정 지옥에 놓일지라도, 스스로 한 선택으로의 경험이라든 무엇이란 성스러운 것으로 인지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상처 붙는다는 과제조차도 정 당화한다는 논거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상황의 영향보다는 개인 내부적 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소 다른 결인 두 주장을 알기쉽기 절충해보면, 인생의 지나온 순간에서 공감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것'이라라는 말을 몇 년 전 친구에게서 들었던. 그리고 나에게 온득 침든 일이 딱딱 때 저 말을 떠올리며 종종 힘을 내게 된다. 어찌 보면 상황에 나를 내맡김과 일치하는 맥락 같다. 이미 돌이킨다 싶, 마음 무거운 책임감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한 탁월성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 뒤, 여기에 감사와 평화를 얻을 여야겠다. 이에 따라 오히려 좋아라여 조금 더 기운이 날 것 같다. 또 하나는 내가 '안

박준하,김예진,배현준 7조 활동 보고서

11월 13일 수요일 5시 스타벅스 경희대학교점

안티크리스트

프레드리히 니체

1.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박준하: 니체 일단 책이 어렵고, 평소에도 읽기 힘든 책이라서 이런 주제를 하기 힘들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읽고 싶지만 못 읽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니체 책 중에 읽은적이 적은 책을 주제로 한 번 활동을 하고 싶어 조금씩만해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준: 저는 책이 그냥 멋진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예진: 저도 그렇습니다.

2. 책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어려운 책을 읽은 후기를 한 번씩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

배현준: 우선 이 책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무서운 심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를 평소에도 읽기 참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관심도 없었고 별 로 흥미가 없었는데, '잘' 아는 상태에서 싫어 한다는 바반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싫어 한다는 요즘 말로 딱딱한 것 같아서 책 선정이 잘 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니체가 사탄을 '실존'한 것 보다 사탄적으로 최근 세대 사람이라 그 점을 감안해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막 시대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던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명 2조 <아방탄> 감상문

이은 (영사외교학과)

본 글을 읽으며 기쁨의 독특한 세계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는 나의 세계관과는 매우 달 리, 쉽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존재했다. 본 책은 피르소의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 다. 크게 일장 속의 푸른빛과 사회에 대한 부조리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소설은 오직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피르소는 이곳에서 특이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는 나중에 피르소의 죽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더욱이 행인이 결혼을 하려고 요청 했지만, 피르소는 무례하게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괴이한 일행들 때문이다. 이 를 통해 피르소의 정신적으로 무감정한 상태라는 것이 곧 공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죽음과 내 연과 감정을 무관심 하게 놓아 버리는 태도를 살아가는 자로 이해했다. 이러한 그의 정 격은 그가 어법인을 살해할 때 두드러진다. 그가 어법인을 살해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어법인이 그를 향해 공격한 것도, 어법인을 증오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것이 그를 가리키 며, 그의 실존을 나타낸 감정의 필요가 어법인을 향한 충구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를 보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차세계는 그가 재발병으로 어떠한 감정을 갖는지 자체가 나타났다. 여기서 그가 보전의 행에서 술해하지 않은 것이 그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보전의 죽음에도 슬퍼 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로 판명되어, 결국 사형 판결을 받는다. 이를 보며 사회가 인간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 아닌 도덕적 규범에 의해 처벌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를 보며 부조리함을 느끼지만, 사형을 당할까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부조리를 거부하지 않고 삶과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죽음을 수용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여 사회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택한 것 같았다.

김우중 (한외교학과)

발레로 키워져 어법인은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개인의 주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 다. 주인공 피르소는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독특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 며, 죽어갈 때 앞을 향해 걸음을 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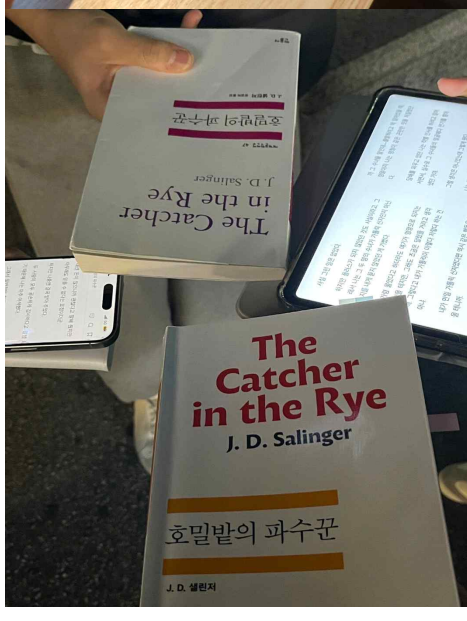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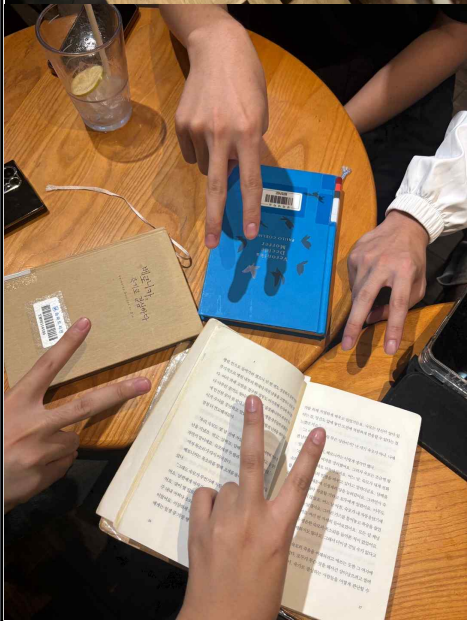
피르소는 삶과 의미를 찾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충실하려는 모습 으로 존재했다. 어법인의 죽음조차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사회적 기대와 크게 배치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삶과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인간 존재 의 허무와 부조리를 대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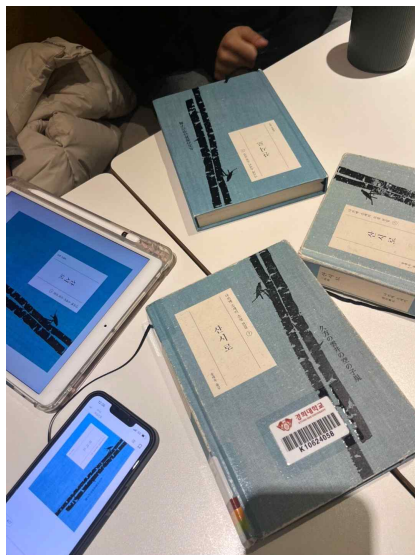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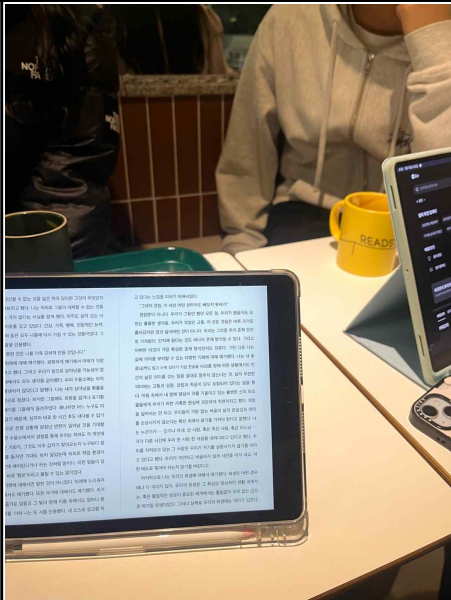
소설의 핵심은 인간이 부조리한 세계와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느껴졌 다. 피르소는 해방되거나 도피하지 않고, 자선적인 방식으로 세계와의 불화를 받아들이고, 삶 은 의미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간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삶은 주체의 해설자가 동행할 수 있다.

제이 안소연: 특히 피르소라는 개인이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평가되는 과정의 부조리함을 잘 드러내었다. 그는 법칙 자체보다도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비난받았다. 이는 개인적 자유와 주체성에 공동체에 반하는 위해 무시될 수 있다는 걸로도 다가왔다.

정한솔: 피르소의 태도는 인간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의 정수를 담고있다. 그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결과는 비판적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송유영 (송유영)